

참다운 애국

주체 50(1961)년 4월 어느날 평양방직기계제작소(당시)에서 있는 일이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들과 함께 이곳에서 생산실습의 나날을 보내고계시였다.

이날 작업장에 들어서던 한 기대공의 눈가에 선반앞에서 열심히 줄칼로 작업을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안겨들었다.

무슨 영문인가싶어 가까이 가보니 자기가 없애기 곤란하다고 생각했던 흠집들을 없애느라고 그이께서 줄칼로 작업을 하고계시였던것이다.

그는 무작정 줄칼을 잡고 자기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방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고 하시면서 만약 우리의 후대들이 이 기대를 물려받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는가고, 모름지기 그들은 이 흠집을 보면서 26호선반을 다루던 주인들의 마음속에 티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기대를 사랑하는것은 곧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조국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기대공만이 기대를 열렬하게 사랑할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영웅의 금메달이 빛나는 26호선반은 오늘도 속삭이고있다.

애국심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의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